

# 우리금융, 다각화 잔걸음... 국제자산신탁 인수 MOU

## 우리금융지주

3년 간 공동경영 후 경영권 인수  
비금융부문 포트폴리오 확보  
은행 등 계열사와 시너지 기대  
종합 부동산금융서비스 제공

우리금융지주가 국제자산신탁을 인수한다.

우리금융은 국제자산신탁 대주주인 유재은 회장 측과 국제자산신탁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실사·인수가격 및 인수조건 협상·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 상호

간의 성공적인 거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된 것. 우리금융지주는 곧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 함께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게 된다.

우리금융의 이번 인수 과정에서 우리은행 부회장 출신의 김병호 국제자산신탁 고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과 국제자산신탁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우리금융과 국제자산신탁은 3년 동안 공동경영을 거칠 예정이다. 우리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서울 소공동 우리은행 본점

용의 전문 분야가 아닌 만큼 부동산신탁 전문가들이 3년 간 경영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금융 입장에서선 부동산신탁 부문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기간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3년간 공동 경영 이후 국제자산신탁의 경영권은 우리금융에 넘어 간다.

국제자산신탁은 지난 2007년 후발주자로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수탁고 23조6000억원, 당기순이익 315억원을 시현했다. 국제자산신탁은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대리사무와 같은 부동산개발 관련 부수업무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자산신탁은 대주주 유재은 회장(55.7%)과 자녀 유재영(10.0%)이 지분 6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6.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자산신탁은 확장성한계를 보이는 이 시장에서 우리금융에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입장에서선 금융지주사의 비금융부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은 연평균 10%대의 성장률과 20%대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데다 그룹내 타 계열사들과의 업무 확장성이 높고 시너지 창출이 용이해 우선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제자산신탁 인수시 그룹 부동산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은행 등 계열사들과 함께 차별화된 종합 부동산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스마트폰뱅킹으로 베트남 ‘정조준’

### KEB하나은행 ‘글로벌 1Q’ 앱

KEB하나은행은 글로벌 스마트폰뱅킹 앱 ‘글로벌(Global) 1Q’의 베트남 지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국내 은행 최초로 캐나다에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스마트폰뱅킹 앱 Global 1Q를 출시한 이래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일본·파나마까지 글로벌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현재 전 세계 7개국에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KEB하나은행의 글로벌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Global 1Q는 베트남 출시를 기점으로 손님 편의성이 한 층 더 강화됐다. 기존 글로벌 은행들이 제공하던 스마트폰뱅킹 앱은 해당 국가 선택이 필수였으나 Global 1Q는 별도의 국가 선택 과정 없이 해당국을 자동으로 인식해 손님은 로그인만으로 서비스의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로그인 후에는 간편한 모바일OTP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체 및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OTP 발급 시 별도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구성된 초기화면에서 대부분



의 거래가 가능한 점이 타행 서비스 대비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다.

하나의 앱으로 국가별 확장 적용이 가능한 Global 1Q서비스를 통해 손님은 ▲계좌조회 ▲대출조회 ▲국내외송금 ▲자동이체 ▲환율안내 ▲상품안내 ▲지점안내 ▲기업 결제함 등의 직관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뱅킹에서 새롭게 선보인 ‘간편송금’ 메뉴는 최근 이체·송금내역 확인 후 금액만 수정해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어 교포, 주재원은 물론 베트남 손님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기업 임원들이 출장 중에 전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승인요청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업결제함 기능도 추가돼 손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 NH농협은행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

NH농협은행이 3일 P2P금융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조회할 수 있는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로 P2P업체가 발행하는 원리금 수취권의 조작과 변경을 막기 위해 투자자에게 NH스마트고지서로 내역을 제공하는 융·복합 블록체인 P2P금융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P2P 원리금 수취권 증서’ 발행 과정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해, P2P금융 생태계에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강태영 디지털전략부장은 “디지털 R&D 센터 조직 신설 후 최초로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의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銀 “디노랩으로 ‘공룡 스타트업’ 만든다”

### 혁신기술 갖춘 기업·해외 진출 지원 ‘위비핀테크랩’·‘디벨로퍼랩’ 운영

우리은행이 스타트업 육성에 이어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 업을 지원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화금융센터에 위치한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 출범식에 참석해 “디노랩을 통해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지원하고, 위비뱅크 등을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채널을 구축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디노랩 1기로 뽑힌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디노랩(DinnoLab)’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Digital Innovation Lab)’의 약어로, 스타트업이 공룡(Dinosaur)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의 ‘요람’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노랩은 기존 ‘위비핀테크랩’과 새로 편성된 ‘디벨로퍼랩(Developer Lab)’으로 운영된다. 위비핀테크랩은 신생기업에 사무공간·경영컨설팅·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육성하는데 주력했다면, 디벨로퍼랩은 중견·선도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개발



우리은행은 3일 서울 여의도 한화금융센터에서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 출범식을 가졌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여섯번째) 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우리은행

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디노랩 입주 기업 14개를 선발했다.

특히 금융권 최초의 테스트베드(Test Bed) 센터인 디벨로퍼랩은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와 협력해 클라우드 개발환경·금융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기술자문 등을 디노랩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최근 리뉴얼을 완료한 모바일 간편뱅킹서비스인 ‘위비뱅크’에 오픈API를 활용해 디노랩 참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글로벌 IT기업과 연계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금융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금융업계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 또한 이에 발맞춰 강한 도전정신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우리금융그룹도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한 디지털 전략을 구축하고, 디벨로퍼랩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는 물론 아마존웹서비스의 교육 프로그램과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금융권 최초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올해 핀테크 기업 투자 300억원과 스케일업 투자 1000억원을 포함, 총 1300억원의 혁신기업 투자 계획도 밝혔다. /홍민영 기자

## 최고 5.0%... 급여이체 고객에 우대이율

### 신한은행 ‘첫 급여드림’ 적금

신한은행은 3일 첫 급여이체 고객에 적금 가입 시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신한 첫급여 드림(Dream) 적금’을 출시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 뿐 아니라 급여계좌를 옮겨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 모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1년제 적금 상품이다.

신한 첫급여 드림 적금은 기본금리 2%에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스텝업(Step-Up) 방식의 우대이자율을 적용한다. 스텝업 우대이자율이란, 급여이체 누적 실적이 늘어날수록 우대이자율도 점점 증가하는 방식으로 ▲급여이체 실적 3개월 달성시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자율 연 1.0%포인트 ▲6개월 달성시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자율 연 2%포인트 ▲9개월 달성시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자율 연 3.0%포인트를 적용한다.

신한 첫급여 드림 적금 가입 후 9개월



급여이체 실적 보유 고객은 다음월 입금분부터 3개월간은 최고 연 5.0%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5월말까지 원신한 금융플랫폼 신한플러스를 통해 첫급여 드림 적금을 1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1만 마인신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유리 기자